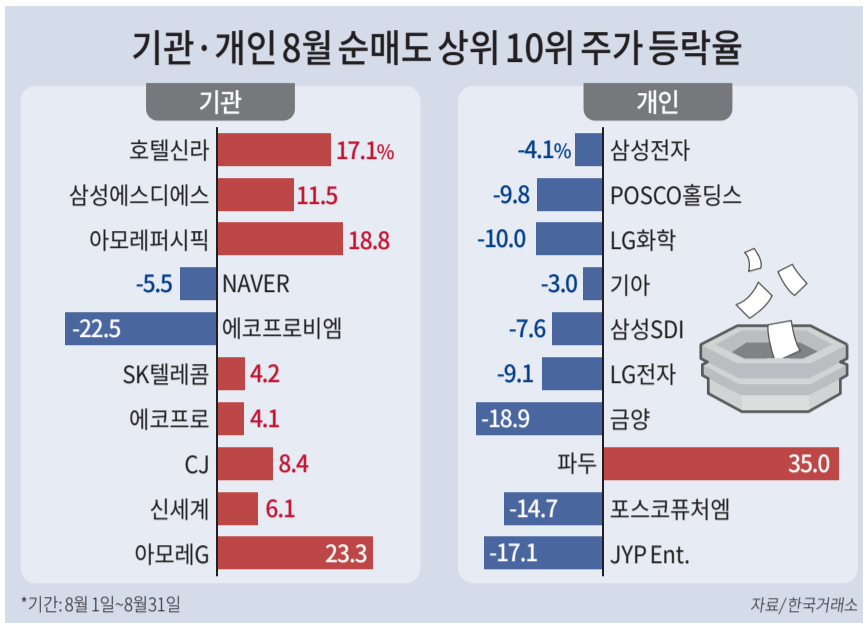


‘반도체 투자’ 재미 울고 ‘유커 집중’ 기관 웃었다… 주가 희비

개인투자자, 순매수 상위 종목 ↓ 상위 10개 중 9개 하락에 손해 기관, 다수 종목서 수익 올라가



지난달 개인이 순매수한 종목들을 기관은 대부분은 순매도하면서 정반대의 주식 투자 결과를 냈다.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 주가는 대부분 하락한 반면, 기관은 다수의 종목에서 수익을 얻으면서 희비가 엇갈린 모습이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한 상위 10개 종목 중 9개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재미(개인 투자자)들은 지난달 ▲삼성전자(-4.1%) ▲포스코홀딩스(-9.8%) ▲엘지화학(-10.0%) ▲기아(-3.0%) ▲삼성SDI(-7.6%) ▲엘지전자(-9.1%) ▲금양(-18.9%) ▲포스코퓨처엠(-14.7%)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17.7%) 등에 가장 많이 투자했지만 수익을 올리는 못했다. 반면, 기관은 투자한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익을 봤다.

특히 삼성전자는 개인이 가장 많이 사들이고, 기관이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이다. 이외에도 포스코홀딩스, 기아, 파두, 엘지전자,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등을 기관은 팔고, 개인은 순매수하며 반대되는 투자 태도를 보였다. 개인은 반도체 등 시기종액 상위 종목에 골고루 투자했고, 기관은 유커 테마주에 집중하면서 명암이 엇갈렸다.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호텔신라(17.1%) ▲아모레퍼시픽(18.8%) ▲신세계(6.1%) ▲아모레G

(23.3%) ▲씨제이(8.4%) ▲삼성에스디에스(11.5%) 등이 이름을 올렸다. 유커 귀환을 노린 화장품·면세점 관련 주의 지분이 높았으며, 실제로 수익률 상승을 견인하기도 했다.

서현정 하나증권 연구원은 “중국의 한국 단체 관광 재개가 6년 만에 결정된 것과 관련해 사업 특성상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큰 면세점의 수혜가 가장 클 것”이라며 “면세점 업체들은 파이공 중심의 높은 할인율이 점차 떨어지면서 수익성 개선 폭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재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삼성전자는 최근 주가 반전 기미를 보이며 꿈틀거리고 있다. 지난 1일 삼성전자 고대역폭메모리(HBM) 4세대 제품인 HBM3를 엔디비아에 공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심이 자극된 것이다. 이날 삼성전자의 종가는 7만1000원으로, 장중 5%이상 상승하면서 다시 ‘7만전자’에 입성했다. ‘7만전자’

복귀는 지난달 1일 이후 한 달 만이다. 박수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엔비디아에 HBM3 납품 소식과 업계 최대 용량 D램 개발 등의 호재가 반영됐다”며 “외국인 또한 삼성전자에 매수세 집중되며 쏠림현상이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증권가에서도 ‘9만전자’에 대한 장미빛 기대감을 내보이고 있는 만큼 재미들의 삼성전자 투자는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올해 엔비디아, AMD를 HBM3 신규 고객사로 확보하는 동시에 내년 HBM3 고객사가 최대 10개까지 확대될 것”이라며 “HBM 점유율 확대와 파운드리 실적 개선 전망 등을 동시에 고려할 때, 삼성전자의 주가는 직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직전 고점은 2021년 1월 11일에 달성했던 9만1000원이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증시 활성화… 韓 증권거래세 폐지 ‘목소리’

“세수 부족에 쉽지 않아”

최근 중국이 침체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0.1%인 증권거래세를 50% 인하하자, 국내에서도 증권거래세의 인하 및 폐지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가 박스권에서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점을 감안, 증시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의 폐지나 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8일부터 자본시장 활성화 및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기존 0.1%에서 0.05%로 50% 인하

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15년 만으로 주식거래 인지세 인하가 적용된 이후 상해종합지수, 심천종합지수 등 중국의 대표 주가지수가 상승 흐름을 보였다.

중국 본토에 이어 홍콩도 증권거래 인지세 인하를 검토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홍콩 증시가 약세를 이어가자 홍콩 증권 및 선물 전문 총회는 지난 9일 홍콩 정부에 증권거래 인지세를 없애 달라는 문서를 공개적으로 제출했다.

이에 최근 국내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자 일부에서 증권거래세 인하를 들먹이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

미래에셋증권 ‘종목 주주분석’ 서비스 선포

평균수익률 등 다양한 정보 제공

미래에셋증권은 국내·해외 주식에 대한 ‘종목 주주분석’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종목 주주분석 서비스는 투자자들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종목별 보유 평균단가, 평균수익률 및 최근 투자자의 성향 등 투자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에서는 종목별 고객 데이터를 보유, 매수, 매도 3가지 관점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보유자 분석에서는 종목을 보유한 고객들의 평균 단가 분포와 평균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다. 매수자 분석에서는 해당 종목을 새롭게 투자한 고객들 중 장기투자 성향의 고객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있으며, 추가 매수한 고객들이 몰타기(종목 손실 중 추가매수)·볼타기(종목 수익 중 추가매수)한 비율도 알 수 있다. 매도자 분석에서는 최근 매도한 투자자들의 평균수익률과 손실 투자자 비율 정보를 확인해 볼 수



/미래에셋증권

있다. 예를 들어 미래에셋증권 고객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해외주식 A 종목의 경우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평균 21.05%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으며, 전체 고객의 약 90%가 수익을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 해당 종목을 신규 매수한 투자자의 성향을 살펴보면 6개월 이상 장기 투자하는 성향의 고객들이 단기 투자하는 성향의 고객들보다 7배 이상 많았다.

/안상미 기자 smahn1@

대우건설, 서울·부산 등 후분양단지 공급

하반기 후분양 아파트 4곳
공정률 60~80% 이상일 때 분양
아파트 실물 확인 가능해 인기

최근 ‘철근 누락’ 논란으로 아파트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후분양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계약금, 중도금을 받지 않고 대규모 아파트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건설사가 많지 않다. 그만큼 자금력이 있다는 의미다. 하반기에만 후분양 아파트를 4곳이나 내놓는 업체가 있다. 대우건설이다. 대우건설은 서울과 부산, 경기 광명, 인천 송도 등에서 후분양 단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달에는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일원에 ‘더 비치 푸르지오 씨밋’ 59~114㎡,

〈대우건설 하반기 후분양 단지〉

위치	단지명	전용면적 (㎡)	총세대수 (일반분양)	입주
부산 남구 대연동	더 비치 푸르지오 씨밋	59~114	1384 (391)	23년 12월
서울 동적구 상도동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59~84	771	24년 2월
인천 서구 왕길동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59~99	1,500	24년 9월

1384가구 중 39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푸르지오 최고급 주거 브랜드 ‘푸르지오 씨밋’이 수도권 외 지역에 최초로 적용되는 단지로 올해 12월 입주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동작구 상도동에서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59~84㎡ 771가구를 선보인다. 특별공급 370가구, 일반공급 401가구다. 발코니 확장과 시

스템 에어컨 등 다양한 옵션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입주는 내년 2월이다.

인천 서구에서는 하반기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59~99㎡ 1500가구를 분양한다. 광명에서는 광명2R구역을 재개발한 ‘트리우스 광명’ 39~102㎡, 3344가구 중 30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이규성 기자 peace@

GS건설, 가전·공간 복합상품 첫 선

단우드와 LG전자 협업

GS건설의 유럽 친환경 모듈러 전문 자회사 ‘단우드’와 LG전자가 함께 개발한 가전·공간 복합상품인 ‘스마트코

티지’가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섰다.

GS건설은 지난 1일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 중인 유럽 가전전시회 ‘IFA 2023’에서 LG전자와 함께 개발한 가전·공간 복합상품인 스마트코티지

를 선보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 출품한 스마트코티지는 지난 5월부터 GS건설과 LG전자가 협력해 개발한 신개념 가전·공간 복합상품이다. 스마트코티지는 국내 모듈러 자회사인 자이가이스트가 선보인 10평 남짓의 소형주택이지만, 충분한 공간감을 확보했다. /김대환 기자

이달 분양 예정 물량 ‘3만2345’ 가구

전년 동월 대비 52% 가량 많아

9월 중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3만2345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2만1337가구) 대비 52%가량 많은 물량이다.

4일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에 따르면 이달 분양 예정 물량(총 가구수 30가구 미만 아파트 단지·임대아파트 단지·사전청약 등 제외)은 42개 단지, 총 3만2345가구로 조사됐다. 전월(2만9335가구)과 비교하면 10%(3010가구) 늘어난 물량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7920가구, 지방은 1만4425가구가 공급된다. 전월과 비교하면 각각 11%(1793가구), 9%(1217가구) 많은 물량이 공급된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9122가구로 분양 예정 물량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5869가구 ▲인천 2929가구 순이었다. 서울에서 분양되는 단지로는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3구역아이파크 자이’가 총 가구수 4321가구(분양 1641가구)로 가장 규모가 컸다. 경기도의 경우 화성시 장지동 ‘동탄레이크파크자연& e편한세상’이 총 세대수 1227가구(분양 1227가구)로 분양되는 단지 중 가장 규모가 컸다.

지방에서는 ▲부산 5828가구 ▲전남 2615가구 ▲광주 1872가구 ▲울산 1277가구 ▲강원 1022가구 ▲충남 791가구 ▲충북 644가구 ▲제주 376가구 순으로 분양 예정 물량이 많다.

/김대환 기자 kdh@